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영어학습믿음과 영어성취도 관계 분석

조혜원
극동대학교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beliefs and their English achievement in e-learning

Hyewon Cho

Dept.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이러닝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영어학습믿음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대학 이러닝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믿음과 수업성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Horwitz의 언어학습믿음목록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141명 중 불성실한 답이나 무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총 116명의 응답 데이터가 이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5개의 요인은 동기, 학습전략, 영어능력, 외국어능력, 의사소통전략이었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언어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와 기대를 갖고 있으나 자신의 언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믿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이기 위한 교수법이나 수업 커리큘럼 제작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 이러닝, 영어학습믿음, 학업성취도, 학습자믿음목록, 동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English learning beliefs of Korean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e-learning cours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beliefs and L2 achievement. Horwitz'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was used to elicit students'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and their grades in a final exam were employed for the English achievement measure. The data from one hundred sixteen respondents were analyzed through a factor analysis and the analysis revealed 5 factors: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English aptitude, foreign language aptitude,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of the e-learning students had a high level of motivation and expectation in learning English but they believed that they had a low language aptitud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tudents' beliefs in motivation and their L2 attainment.

Key Words : E-learning, English learning beliefs, Achievement, BALLI, Motivation

Received 22 September 2016, Revised 30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e-won Cho
(Dept.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Email: jypenn@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온라인 교육, 디지털교육, 원격교육 등의 이러닝은 사교육 뿐 아니라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이버대학 뿐 아니라 일반대학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적 역할로 온라인 수업이 개발되고 있다. 교양강좌에서의 이러닝 활용 수업은 완전한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 이러닝은 기존의 교수자와 면대면 교수학습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다[2]. 학생들은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닝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와 면대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과 그룹 활동이나 토론, 발표 등의 의사소통방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3].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한 연구에서 온라인 영어 교과목 교수설계 단계에서 학습자와 콘텐츠 사이,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차별적인 상호작용 전략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4].

이처럼 면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영어온라인 교과목 설계단계에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와 콘텐츠 개발자가 학습자의 영어학습믿음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Wesely(2012)는 학습자 믿음을 학습자의 인식보다 좀 더 중요하고 폭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5]. Horwitz(1988)는 ‘학습자의 믿음’을 언어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견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언어학습믿음목록(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BALLI)을 개발하였다[6].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설문지는 크게 5개의 주제(theme)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어능력”, “외국어학습의 어려움”, “언어학습의 본질”, “학습과 의사소통 전략”, 끝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과 기대”이다. 이와 같은 Horwitz의 언어학습믿음목록은 학습자의 믿음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채택되어 왔다[6, 7, 8, 9, 10, 11, 12, 13, 14, 15]. BALLI는 다양한 context에서 학습자의 외국어학습믿음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내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상황에서의 학습믿음[6, 8, 9, 12]

과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의 학습믿음[7, 11, 13, 14, 15, 16]이 그러하다.

그러나 언어학습믿음에 관한 연구 중에서 이러닝 영어학습자의 언어학습믿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Zhang과 Cui(2010)는 중국 원격교육 수강 학생들의 외국어학습 믿음에 대해 조사하였다[15]. 그들에 따르면 여기에서 원격교육은 장거리 교육과 장거리 학습을 포함한 학습 제공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원격교육은 TV와 비디오를 통해 주로 제공되고, 인터넷은 강사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교육에서 강사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격교육 학습자들은 대부분 아이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언어학습에 더 쉽다고 믿었고 절반 이상의 학생이 언어학습은 주로 번역을 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반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언어학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연구 결과는 TV나 비디오를 통해 학습하는 원격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도출되었고, 응답자들은 원격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이 원격교육 학생들의 외국어학습믿음과 그들의 학업성취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의 믿음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김경자(2012)는 영어학습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of English learning)과 문법학습의 중요성(importance of grammar learning)이 제 2언어 학업 성취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1]. 그러나 이 연구에서 BALLI는 일부만 채택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과 학업성취의 관계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언어학습믿음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개념적으로 구분된 Horwitz의 5개의 주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연구에 적합하게 항목을 수정하여 조사해왔다[15, 17, 18, 19]. 이 연구들은 BALLI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고 빈도나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Li와 Ruan(2015)은 BALLI에서 언어의 어려움과 언어의 본질 주제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외국어학습믿음을 조사하였다[19]. 이 과정에서 설문지의 신뢰도검사는 이루어졌으나 요인별 내

적 타당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빈도와 기술통계만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방법론적인 제약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6].

그러므로 본 연구는 BALLI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도출된 요인과 선택요인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후에 대학 이러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믿음은 무엇인지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대학 이러닝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믿음과 수업성취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이러닝 강의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의 대상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계획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러닝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교양 영어수업을 수강한 1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그 중 전부 한 숫자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무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총 116명의 학생이 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 학생들의 연령대는 22-24살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48.3%), 평균 나이는 22.9세였다.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한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학습기간을 6-10년이라고 답한 학생은 37.1%, 11-15년이라고 답한 학생은 41.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6년 이상 영어를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16명중 57명은 남학생, 59명은 여학생이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에 방문한 적이 전혀 없는 학생은 92명으로 전체의 79.3%에 해당했다. 학년으로는 2학년(33.6%), 3학년(34.5%)이 주를 이루었고, 1학년 학생이 가장 적었다(9.5%). 마지막으로 수강한 이러닝 수업의 기말시험에서 A를 받은 학생은 33명, B는 25명, C는 35명, D는 23명이었다.

2.2 측정도구

이러닝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설문지와 Horwitz의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BALLI: 언어학습 믿음목록)를 이용하였다[6]. 인구통계학 설문 조사에는 참여 학생들의 나이, 전공, 성별, 영어 학습 기간, 학년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Horwitz의 BALLI는 학습자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총 34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질문들은 5개의 주제(외국어 적성, 언어학습의 어려움, 언어학습의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동기 및 기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질문항목에서 '외국어'라는 부분은 '영어'로 대체되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채택하였다.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한 이 질문지에서 1은 매우 동의함을 뜻하고 5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닝 학습자의 영어학습믿음이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 학생들의 기말시험 점수를 이용하였다. 기말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법, 어휘, 읽기 시험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실제 연구 대상인 116명의 기말성적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Frequency	Percentage
age	19-21	34	29.3
	22-24	56	48.3
	25-27	26	22.4
	Total	116	100.0
English learning period	1-5	10	8.6
	6-10	43	37.1
	11-15	48	41.4
	16-20	15	12.9
	Total	116	100.0
Gender	Male	57	49.1
	Female	59	50.9
	Total	116	100.0
Foreign country experience	experience	24	20.7
	no experience	92	79.3
	Total	116	100.0
Grade	Freshman	11	9.5
	Sophomore	39	33.6
	Junior	40	34.5
	Senior	26	22.4
	Total	116	100.0
Achievement	A	33	28.4
	B	25	21.6
	C	35	30.2
	D	23	19.8
	Total	116	100.0

2.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언어학습믿음목록 질문지와 인구통계학설문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기 도중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인 116명 학생들의 설문지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 설문지 답변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BALLI 설문지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KMO(KMO >.5)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요인분석($p < .05$)을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항목들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통성이 0.4 미만인 항목을 제외한 후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적재치가 0.4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고, 그 결과 21개의 항목과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누적비율은 51.68%였다. 선택요인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0.6이상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Items	Factor				
	1	2	3	4	5
23	.76				
30	.70				
17	.62				
31	.60				
27	.57				
34	.46				
7		.92			
21		.91			
13		.89			
16		.44			
3			.69		
15			.62		
6			.58		
12			.47		
32				.73	
10				.67	
2				.65	
22				.61	
19					.90
9					.88
29					.54
Eigenvalues	3.65	3.35	2.72	2.42	2.33
% of Variance	13.04	11.95	9.72	8.64	8.33
Cumulative %	13.04	25.00	34.71	43.35	51.68
Cronbach' α	.75	.87	.60	.66	.75

KMO= .69, Bartlett's test $\chi^2 = 1,616.92$ ($p = .00$)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5개의 요인을 기준으로 이러닝 학생들의 언어학습믿음 설문 응답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언어학습믿음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요인별 평균을 구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기말성적을 이용하였고, 성적 결과 A, B, C, D 그룹으로 성적 집단이 나누어졌다. 이 네 개의 성적 그룹의 언어학습믿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이러닝 학습자의 영어학습믿음

이러닝 학습자의 언어학습믿음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5개의 요인은 동기, 학습전략, 영어능력, 외국어능력, 의사소통전략이었다. 요인과 각 항목 별로 이러닝 학습자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응답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동기에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동의와 매우 동의를 선택하였고, 각 응답 평균은 1.91, 1.80, 1.65, 2.31, 2.21이었다. “영어를 매우 잘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에 매우 동의한 학생은 41.4%, “영어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48.3%, “영어 학습에 반복과 연습이 중요하다”는 51.7%, “영어 원어민과 친해지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23.3%,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28.4%,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영어를 배워 말할 수 있다”에 매우 동의한 학생은 51.7%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나 매우 동의를 선택한 반면에 “영어 원어민과 친해지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싶다”와 “모든 사람은 영어를 배워 말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학생은 0명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학습전략의 모든 항목에서 60% 이상의 학생들은 매우 동의나 동의를 선택하였다. “영어를 말할 때 발음이 중요하다”는데 매우 동의한 학생은 43.1%였고, “언어 학습실에서 영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한다고 답한 학생은 39.7%, “영어에서 단어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를 추측하는 것은 괜찮다”에 동의한 학생은 37.9%,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많은 새로운 어휘를 배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English Learning Beliefs of E-learning Students

Factor	Items	1 ^a	2	3	4	5	M	SD
motivations	If I speak English very well, I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use it.	41.4 ^b	32.8	19.0	6.9	0.0	1.91	0.94
	It is important to speak English.	48.3	31.9	13.8	3.4	2.6	1.80	0.98
	It is important to repeat and practice often.	51.7	37.1	7.8	1.7	1.7	1.65	0.84
	I would like to learn English so that I can get to know its speakers better.	23.3	31.0	37.1	8.6	0.0	2.31	0.93
	If I learn to speak English very well it will help me get a good job.	28.4	37.9	20.7	10.3	2.6	2.21	1.05
	Everyone can learn to speak English.	51.7	33.6	8.6	6.0	0.0	1.69	0.87
learning strategies	It is important to speak English with an excellent accent.	43.1	39.7	11.2	4.3	1.7	1.82	0.92
	It is important to practice in the language laboratory.	21.6	39.7	25.0	10.3	3.4	2.34	1.04
	It is okay to guess if you do not know a word in English.	23.3	37.9	24.1	11.2	3.4	2.34	1.06
	Learning English mostly a matter of learning many new vocabulary words.	29.3	40.5	19.8	6.0	4.3	2.16	1.05
English aptitude	English is easier to learn than others.	14.7	26.7	41.4	14.7	2.6	2.64	0.99
	I have an English aptitude.	1.7	8.6	47.4	31.0	11.2	3.41	0.87
	I believe that I will ultimately learn to speak English very well.	25.9	38.8	24.1	8.6	2.6	2.23	1.02
	If I heard someone speaking English, I would go up to them so that I could practice speaking English.	31.0	18.1	33.6	12.9	4.3	2.41	1.18
foreign language aptitude	People who speak more than one language well are very intelligent.	21.6	41.4	20.7	8.6	7.8	2.40	1.15
	It is easier for someone who already speaks a foreign language to learn another one.	11.2	33.6	31.9	15.5	7.8	2.75	1.09
	Some people are born with a special ability which helps them learn a foreign language.	24.1	30.2	26.7	13.8	5.2	2.46	1.15
	Women are better than men at learning foreign languages.	1.7	15.5	19.0	37.1	26.7	3.72	1.08
communication strategies	If you are allowed to make mistakes in the beginning, it will be hard to get rid of them later on.	8.6	10.3	30.2	50.9	0.0	4.23	0.95
	You should not say anything in English until you can say it correctly.	5.2	9.5	27.6	57.8	0.0	4.38	0.86
	People who are good at math and science are not good at learning foreign languages.	0.9	2.6	6.0	36.2	54.3	4.41	0.79

Note. ^a 1. strongly agree; 2. 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disagree; 5. strongly disagree; ^b percentage

운다는 것이다”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40.5%였다. 각 항목의 평균은 1.82, 2.34, 2.34, 2.16이었다. 세 번째 요인인 영어능력에서는 위와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동의도 반대도 아닌 답변을 선택하였다. “영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쉽다”는 41.4%, “나는 영어능력이 있다”는 47.7%, “나는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는 24.1%, “누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 영어 연습하기 위해 다가간다”는 33.6%가 그와 같이 답을 하였다.

네 번째 요인인 외국어능력에서 “한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하다”는 41.4%, “하나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외국어를 더 쉽게 배운다”는 33.6%,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다”는 30.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더 뛰어나다”는 37.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전략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만약 영어 학습 초반에 오류가 허락된다

면, 나중에 그 오류를 제거하기가 어렵다”(50.9%), “영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한다”(57.8%),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덜 뛰어나다”(36.2%)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3.2 학습자의 믿음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이러닝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의 언어학습 믿음과 수업성취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요인 1과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r=0.45$, $p<0.01$)가 있었고, 다른 요인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 집단(A, B, C, D) 간에 언어학습 믿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요인인 동기에서 학생성적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F=9.29$, $p<.01$)가 있

었다. 사후분석결과 A집단은 C와 D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B는 D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성적 집단인 C와 D사이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Language Learning Beliefs and Achievement

	Factor	1	2	3	4	5
achievement	Pearson Correlation	.45**	-.05	.14	-.05	-.05
	Sig.	.00	.58	.13	.57	.58

Not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5〉 One-way ANOVA Result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	15.26	3	5.09	9.29	.00
2	3.38	3	1.13	1.14	.34
3	2.13	3	0.71	1.36	.26
4	1.39	3	0.47	0.61	.61
5	3.38	3	1.13	1.14	.34

Note. 1=Motivation, 2=learning strategies, 3=English aptitude, 4=Foreign language aptitude, 5=communication strategies

4.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이러닝 수업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언어학습민음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와 같은 언어학습민음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34개의 항목을 포함한 BALLI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5개의 요인과 21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5개의 요인은 동기, 학습전략, 영어능력, 외국어능력, 의사소통전략이었고, 각각 6개, 4개, 4개, 4개, 3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닝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나 기대를 갖고 있었다. 80.2%의 학생들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66.3%의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영어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었고, 이와 같은 도구적 동기가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74.2%의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면 사용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고, 54.3%는 영

어원어민과 친해지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내재적 동기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내인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이러닝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도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강한 동기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태국과 대만 학생들의 경우도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13, 16], 이는 아시아권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전략에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영어에서 발음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82.8%). 특히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확한 발음이 언어전달력을 떨어트린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연습하거나 배울 때,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불안이 증가하고 자신감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연습실(language laboratory)에서 영어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대다수가 발음과 드릴(drill)과 같이 정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학습은 어휘를 배운다는 것(69.8%)이라 믿으면서도 영어에서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추측해도 된다고 믿는 경우 역시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정확한 언어사용이 중요하다는 믿음과 동시에 하향식기술인 의미추측도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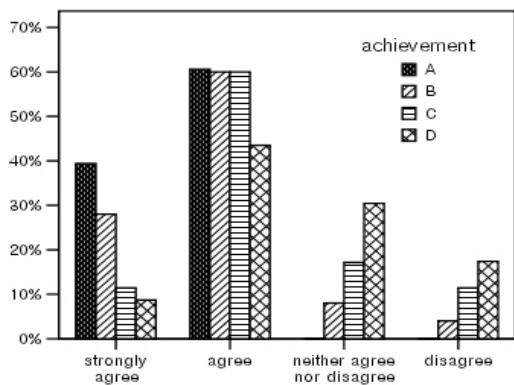
영어능력 요인에서 응답자들 중에서 자신이 영어능력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10.3%에 불과한 반면에 영어능력이나 소질이 없다고 믿는 학생은 42.2%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결국 언젠가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학생들은 64.7%였고 그렇지 않다는 학생은 11.2%에 불과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영어 학습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기와 마찬가지로 영어습득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능력에서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경우는 63.0%였고, 특별한 외국어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4.3%였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외국어를 배

우는데 더 뛰어나다는 질문에는 63.8%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다. 학생들은 외국어능력에 개인차가 있다고 믿었지만 남녀차이가 있다고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에서 학습자들은 오류에 대한 거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에서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한다는 항목에 대해 57.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처음에 영어사용에 오류를 허용한다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18.9%, 그렇지 않다는 50.9%였다. 절반정도의 응답자들은 초반에 오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초반에 굳어진 오류가 나중에 화석화되어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언어사용에서 오류나 실수가 교정이나 피드백 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와 기대를 갖고 있으나 자신의 언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였다. 이는 오랜 영어 학습에도 원하는 만큼의 영어능숙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의 영어수업이나 교과서의 난이도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수업의 구성과 진행이 이러닝 학습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Fig. 1] Motivation of Four Groups
 Note. "strongly disagree" was deleted from the figure because no one chose the answer.

이러닝 학습자들의 언어학습믿음은 그들의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개의 성적 집단으로 구분한 성취도와 다섯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기와 성취도간에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성적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도 높았다. 이와 같은 집단 차이는 특히 A집단과 C, A와 D, B와 D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ig. 1]에서처럼 성적이 높은 학생과 성적이 낮은 학생은 동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성적 집단인 A집단은 모든 학생이 동의한다고 답을 하였고 단 한명도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B집단 역시 88.8%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C집단은 높은 동의를 보였지만 A나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11.4%), 가장 낮은 성적 집단인 D는 그보다 더 높은 17.4%였다. 이는 동기나 기대가 낮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도 떨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꿔 말해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모든 사람은 영어를 배워 사용하수 있다는 믿음이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 등이 높은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은 그러한 동기나 기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믿음이 학업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동기나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이는 것이 강사의 지도법이나 수업의 커리큘럼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학습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I2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11]. 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제 2언어를 학습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의 성취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에 대한 낮은 동기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이러닝 학습은 일반학생들 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되고[20], 더 나아가 모바일을 활용한 영어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21]. 이 연구는 이러닝 학습자들의 언어학습믿음과 수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러닝 강의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이 수업계획 단계

에서 자신들의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러닝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나 기대를 갖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어를 말하는 것을 중시했고, 절반 이상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영어가 취업에 중요한 요소로 믿었고, 이런 도구적인 동기가 이러닝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원어민과 친해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내재적 동기를 역시 갖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도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학생들은 언어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과 기대를 갖고 있으나 자신의 언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였다. 오랜 영어 학습에도 자신의 영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수강하는 이러닝 영어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서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수업의 구성과 진행이 이러닝 학습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학습민음의 높은 동기는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양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기가 높은 학생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동기가 낮은 학생은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 결과는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민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의 동기나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민음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이러닝 수업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닝 학습의 교수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수업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한점이 일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학생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설문지 제공 후에 응답자 중 일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제 생각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성별, 해외경험유무, 영어교육기간에 따른 차이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는 인터뷰 실시와 학습자의 성별이나 영어학습민음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Kwon, J. Lee, S. Han, & S. Bhang, "A Study on Utilization of e-learning in General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 Focus on Contents Sharing among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6, No. 1, pp. 9-32, 2012.
- [2] I. Lee, "e-learning", Muneumsa, 2002.
- [3] J. Lee, J. Kim, & S. Cho, "A study of interactiv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of e-learning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 26, No. 2, pp. 51-83, 2010.
- [4] J. Kim, "Design and Development of English e-Learning Content to Facilitate Interaction", *Kore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1, No. 4, pp. 863-891, 2011.
- [5] P. M. Wesely, "Learner Attitudes, Perceptions, and Beliefs i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Vol. 45, pp. S98-S117, 2012.
- [6] E. K. Horwitz,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beginn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2, No. 3, pp. 283 - 294, 1988.
- [7] R. L. Diab, "University students' beliefs about learning English and French in Lebanon", *System*, Vol. 34, No. 1, pp. 80 - 96, 2006.
- [8] E. K. Horwitz, "Us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foreign language methods course", *Foreign Language Annals*, Vol. 18, No. 4, pp. 333 - 340, 1985.
- [9] E. K. Horwitz, "Survey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 A.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19 - 129, London: Prentice-Hall, 1987.
- [10] E. K. Horwitz, "Cultur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foreign languag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BALLI studies", *System*, Vol. 27, No. 4, pp. 557 - 576, 1999.
- [11] K. Kim, "Language learning belief factors affecting English achievement", *English Teaching*, Vol. 67, No. 4, pp. 173-194, 2012.

- [12] P. S. Kuntz, "Belief about language learning: The Horwitz mode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97 649, 1996.
- [13] L. Nikitina, & F. Furuoka, "Re- examination of Horwitz'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BALLI in the Malaysian context",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Vol. 3, No. 2, pp. 209 - 219, 2006.
- [14] K. Sakui, & S. J. Gaies, "Investigating Japanes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System, Vol. 27, pp. 473-492, 1999.
- [15] X. Zhang, & G. Cui, "Learning beliefs of distance foreign language learners in China: A survey study", System, Vol. 38, pp. 30-40, 2010.
- [16] T. Fujiwara, "Language learning beliefs of Thai EFL university students: Dimensional structure and cultural variation",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Vol. 8, No. 1, pp. 87-107, 2011.
- [17] S. Ariogul, D. Unal, & I. Onursal, "Foreign language learners' about language learning: a study o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 pp. 1500-1506, 2009.
- [18] H. Bagherzadeh, "Language learning beliefs of non-English majors: Examining the role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 3, No. 4, pp. 784-792, 2012.
- [19] C. Li, & Z. Ruan, "Changes in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mong Chinese EAP learners in an EMI context in Mainland China: A socio-cultural perspective", System. Vol. 55, pp. 43-52, 2015.
- [20] Yeob-Myeong Son, Byeong-Soo Jung,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13-119, 2015.
- [21] Jungtae Ki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bile-based English Speaking Test Converg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25-31, 2016.

조혜원(Cho, Hyewon)



- 2011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교수법, 담화, 코퍼스, 언어습득,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말하기, 특수목적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러닝
- E-Mail : jypenn@hanmail.net